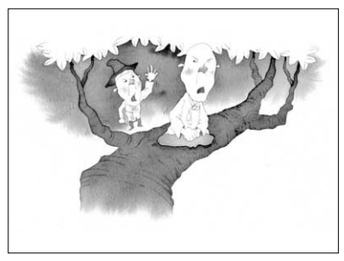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8〉 백낙천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이 세상에 부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 게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최고의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행자 때 사시마지를 올리는 '삼보통청(三寶通請)'이라는 예불문을 배우면서 이 글을 처음 만났다. 뒤에 학인시절 〈치문경훈〉을 보는데 낙천(樂天)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찬불(讚佛)' 속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방세계(十方世界)와 천상천하(天上天下)를 아금진지(我今盡知)하니 무여불자(無如佛者)라(시방세계와 천상천하에 내가 지금 모두 알아보니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어라)"



백낙천 거사와 작소도림 선사의 이야기는 법당벽화로도 자주 그려지는 선종의 명장면이기도 하다. 도림선사는, 진망산의 낙락장송이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일산같이 생긴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살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조과(鳥窠:새둥우리) 선사' '작소(鵲巢:까치집) 선사' 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소문을 듣고 그 지역 태수인 백낙천이 그 곳을 찾아갔다. 아니나다를까, 선사가 나무 위에서 그가 오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백낙천이 나무 위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선사께서 계신 곳이 몹시 위험합니다."

"땅 위에 있는 태수의 위험은 더욱 심하오."

"벼슬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는 것과 같이 망상과 망상이 끊어지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밖으로는 높은 벼슬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안으로는 가정살이로 인한 번뇌로 심화(心火)가 끊어지지 않으니 비록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고는 하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이 높은 나무에 있는 나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말이었다. 그건 그렇다손 치고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악을 짓지 말고 선을 쌓으시오."

"그건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소."

'불법이 무엇이냐?' 고 물으면 일반적인 선문답은 '뜰앞에 잣나무' 니 '똥막대기' 니 하면서 기상천외한 답변이 주류를 이루는데 작소도림 선사의 문답은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말을 하는 까닭에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 흔히 칠불통계게(七佛通誡偈)라고 불리는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율종과 선종의 또다른 접점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무 위 선사에게 "몹시 위험합니다" 하자
"망상 끊이지 않으니 태수가 더 위험하오"

하지만 〈전등록〉에 나타난 백낙천의 심요를 깨치게한 스승은 불광여만(佛光如滿) 선사이다. 여만은 마조도일의 제자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거사는 말년에 자기의 봉급을 털어서 용문(龍門)에 향산사(香山寺)를 짓고서 절을 낙성하고는 손수 기문(記文)을 지어서 달았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산거사라고 칭하였다.

그의 간절한 발원문은 오늘까지 전해온다.

"번뇌를 제거하기를 원하며, 열반에 머물기를 원하며, 십지(十地)에 오르기를 원하며, 사생(四生)을 제도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할 때에 내가 가까이 함을 얻어 가장 먼저 권청(勸請)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이 멸도할 때에 내가 만남을 얻어서 최후에 공양하고 보리의 수기를 받고자 원하옵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수행점검표 작성
"내가 변했어요"

동화사 '미리 닦는 집중수행' 현장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진행된 '미리 닦는 집중수행'에 참가한 불자들이 참회정진을 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살아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는 재 의식 정도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찰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회나 행사를 연다. 하지만 공덕을 닦는 길이 '수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전국의 사찰들이 윤 7월을 맞아 생전예수재 법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미리 닦는 집중수행'으로 9월1일부터 7일까지 예수재를 봉행해 눈길을 끌었다.

▷일주일간의 '자기 점검'

9월 4일 오전 동화사 통일대불전. 500여 불자들이 예불을 마치고 일제히 참법정진에 들어갔다. 108 참회정진을 하고 있는 불자들 옆에는 노트보다 조금 긴 크기의 옅은 황토색 팸플릿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참법발원문이 봉독되고, 주지 허운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법회가 진행되는 도중 몇몇 불자들이 뒤늦게 통일대불전으로 들어왔다. 그 중 한 보살이 반으로 접힌 팸플릿을 편다. 오른쪽에 '수행점검표'라는 표가 그려져 있다. 그 보살의 시선이 표 안에 적혀 있는 '참법정진 예수재에 참여하도록 권한다'는 글귀에 머문다.

동화사는 생전예수재를 수행기간으로 정하고 일주일동안 불자들이 수행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수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했다.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은 7일간 이 표를 지니고 다녀야 했다.

법회를 마친 불자들 적지 않은 수가 점심공양을 한 뒤 다시 통일대불전에서 가부좌를 틀었다. 일부는 부처님 명호를 외거나 다라니를 독송했고, 일부는 좌선에 들었다. 또 한 무리는 경전을 읽고, 다른 한 무리는 절을 했다. 4일 통일대불전의 오후는 그렇게 수행하는 불자들의 열기로 채워졌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배고픈 한사람 구제하기 등 15개 실천 항목 7일간 체크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게 살아온 과거 참회 · 발심

▷수행점검표에는 어떤 내용이…

수행점검표는 15개의 항목을 7일 동안 매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15개의 항목은 △참법정진기도수행 △한 권의 경전독송 △참회의 108배 △다라니독송 △불보살 명호 천 번 염송 △한 사람의 착한 일을 칭찬하기 △한사람이 나쁜 일을 못하도록 저지하기 △한사람의 배고픈 것을 구제하기 △남을 제도하도록 권하는 글을 나눠주기 △남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기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기 △육식을 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육식 않고 재계하기 △한 생명을 구해서 살려주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기 △낙태를 못하게 하기 등이다.

참가자들은 일주일간의 집중수행 동안에는 동화사에서의 법회시간은 물론이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위의 15개 항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회향날인 7일에는 이 점검표를 부처님 전에 공양하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반성한다.

▷집중수행 해보니

신성자(58 · 동구 지묘동) 보살은 오후에 참법정진을 했다. 신 보살은 수행점검표 '남을 제도하도록 권하는 글을 나눠 주기' 항목에 '참법정진 예수재에 참여하도록 권한다'는 글을 써넣었던 주인공.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차 안에서 다라니를 독송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왔어요. 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연속임을 깨달은 것이 이번 법회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입니다."

대천 거사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수행점검표 항목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다"며 뿌듯해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보살은 "생전예수재 집중수행을 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길을 가다 예쁜 호박이 있어 무심코 땄던 일이 떠올라 참회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순옥(58 · 대구 동구 신서동)보살은 모든 가족이름으로 집중수행 등록을 하고 가족들에게 점검표와 자비수참 책을 가져다주면서 수행에 동참할 것을 권했다.

"시간이 없어 모든 가족이 매일 법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학교 다니는 3남매가 각자 점검표에 동그라미를 치며 스스로의 생활을 살피고 있다"면서 "가족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어 발심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며 웃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졌다는 신 보살은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가 수행에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공무원으로 퇴임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대천(65) 거사는 "집중수행기간 동안 수행점검표에 있는 항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살았는지를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글 · 사진/동화사=배지선 기자

interview

"인과 깨닫는 수행 많이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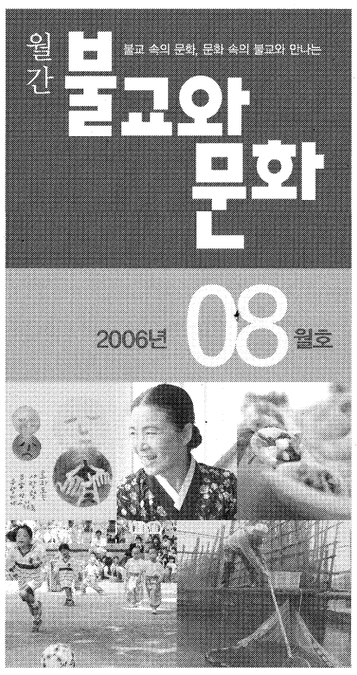
'집중수행 예수재' 봉행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나 결과를 생각지 않고, 중생은 원인은 생각지 않고 결과만 집착하며, 이것이 보살과 중생의 차이"라는 허운 스님은 "인과를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생전예수재를 집중수행으로 봉행한 의미를 설명했다.

허운 스님은 또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발원을 하는 것이 참법기도의 목적이며, 불자들이 쉽게 참회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수행점검표를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서울 상봉터미널 금란교회 재일은행 망우고개 중구청 덕소 팔당 양평 도농삼거리 마지터널 1Km 성화불교미술원(공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문화잡지
『불교와 문화』 2006년 8월호 발간!

월간 불교와 문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2006년 08 월호
현암사 형난옥 주간의 내 기억 속의 절밥 | 일지암의 절밥
현장르포 | 칭짱철도 개통 현장을 가다
티베트로 달려가는 칭짱철도와 티베트불교의 미래
문화포커스 | 스포츠와 불교 특성화된 불교스포츠 상품을 개발하자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1 – 생(生)
생(生)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이 생(生)의 한가운데에 있다, 버리며 살기 – 생(生)에 대한 일반의 시선,
수행자라면 태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의 불교태교,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네 아이와 살아가는 이유, 인권(人權)출산이란 무엇인가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10 | 한국불교의 3대 신앙 (2)
응용불교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4
억불시대 수행열전 | 붓다의 제자 반특을 닮은 묘신(妙信)의 수행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 불교를 통해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
집중인터뷰 2 | 국악계의 프리마 돈나 안숙선 명창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경남 남해군 지족리마을 죽방렴 하는 부부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Nada Yoga」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짚풀생활사박물관
오래된 향기 | 생활 속의 불교설화(우란의 고통과 효의 길)
시로 지은 절 | 복효근 作 「쌍계사에서」
현장 속으로 | 제3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 또로록, 똑! "마음이 뻥 뚫려요"
2006 테마기획 |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먹는 여름 사찰 별식 3선
건강 에세이 | 호흡과 명상은 피부건강의 지름길
독자들 세상 | 1 칭찬합니다 2 독자의 시(詩)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5 | 서울의 옛집
광고 및 구독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